전남 파프리카 위기

엔고에 日 수출 단가 하락
수입 원자재가 100% 올라
농가 "생산비도 못 건져요"

"앞이 캄캄해요. 원자재값은 크게 올랐는데, 수출물량은 자꾸 줄어들어 생산비나 제대로 건질까 걱정됩니다."

화순군 도곡면 파프리카 시설하우스에서 만난 정재민(42·가명)씨는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위기가 이런 시골까지 불어닥친 것 같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도곡파프리카영농법인 회원인 정씨는 0.67ha(2천평)에서 양액재배를 이용, 연간 80t의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0엔당 700원대에 불과하던 원·엔환율이 11월 들어 1천300~1천400원대를 오가자, 정씨는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큰 이윤을 남기겠다 싶어 큰 기대를 했다.

그러나 원·엔환율이 오른 대신 일본내 실물경기가 위축되면서 파프리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바람에, 이달 말 수확을 앞두고 벌써부터 판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씨는 "지난해 수출과 내수를 6대 4의 비율로 판매했는데, 1kg 수출단가로 2천500~2천600원을 받아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수출물량 축소도 걱정되지만, 수출단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여 수출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정씨는 올 들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유로(EURO) 때문에도 잠을 설치기 일쑤다. 유로환율은 지난 1월 1천400원대에서 10월 현재 1천910원대로 무려 510원이나 치솟았다.

파프리카 양액재배농법은 양액에서부터 받침대, 종자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수입해 사용한다. 그러나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들 원자재가가 30~100% 상승, 매출의 80%까지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정씨는 "지난해 2억5천만원의 소출 가운데 2억여원을 생산비로 쏟아부었는데, 올해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생산비를 보장해주거나 난방용 기름값을 낮춰주는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지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40농가가 46ha의 면적에서 연간 3천954t(전국의 14.4%)의 파프리카를 생산, 연간 680만달러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으나 엔고 파장으로 올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역 파프리카 재배농민들이 수출감소와 높은 원자재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농민이 화순군 도곡면 시설하우스에서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불황에 지갑 안열어

지난달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 매출 큰폭 감소

소매판매 증가율 3년 8개월여만에 '마이너스'로

불황의 여파로 광주지역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으면서 9월중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경우 물가상승요인을 뺀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3년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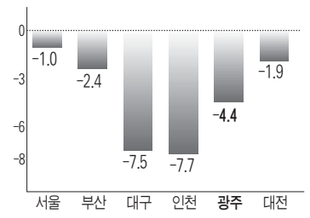
5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9월중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천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1천427억원)에 비해 4.6%(63억원) 줄어든 것으로, 전국 평균(-2.7%)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특히 광주는 9월중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716억5천만원으로, 1년 전보다 7.2%나 줄었다. 불황과 짧은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은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4분기 광주·전남의 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2로, 1년 전(91)보다 무려 19포인트 떨어졌다.

■주요 도시별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 추이 (전년동월비)



이는 현재의 생활형편이 6개월 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1년새 크게 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 위축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3천679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9월(4조4천894억원)보다 2.7%(1천215억원) 줄어든 것으로, 최근 금융위기 등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년새 10.3% 줄어든 것을 비롯, ▲강원(-8.8%) ▲울산(-8.2%) ▲인천(-7.7%) ▲대구(-7.5%) 등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처럼 소매판매 규모가 급감한 것은 불황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에 대한 구매를 대폭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승용차 판매액이 1년 전보다 7.3% 줄어든 가운데 가전제품·컴퓨터·통신기기도 3.7% 감소했다. 또 의류 및 신발 판매도 8.3%나 줄었다. 반면 차량용 연료의 판매액이 18.4% 증가한 것을 비롯, 화장품 및 비누(15.1%), 의약품·의료용품(11.1%) 등의 판매는 크게 늘었다. 소비자들이 큰 돈이 들어가는 살림살이 장만보다는 필수 소모품 성격이 강한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생활용품 싸게 팝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1층 행사장에서 오는 9일까지 전 세계의 최신 리빙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메종 드 신세계'를 열고 있다. '메종 드 신세계'에는 명품 크리스털 등 유명 생활용품 42개 브랜드가 참여, 시중가보다 20~30% 싼값에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영구 임대 아파트 관리비 40% 인하

대한주택공사는 광주·전남 등 전국 126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관리비를 40%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주택공사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고 관리시설 등을 개선해 현재 월평균 3만4천600원인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를 2010년까지 2만700원선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입주해 있으며,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난방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를 가동할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고 경비초소도 동별로 설치되는 등 오히려 관리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전남도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국민·공공임대 등 일반 임대주택보다 높게 책정돼 입주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재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 광주지부장은 "임대주택의 단지별 관리비 격차가 큰 것은 관리직원의 임금이나 경비비 등 인건비를 임의대로 책정하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건비와 단지 관리 등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어업인 지원에 1조 5천억 더 푼다

농자재 물가 상승 감안 내년 7조 3천억 융자

농자재 물가 상승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정부가 내년도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1조5천억 정도 늘려 잡았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업종합자금·영농자금·영어자금 등의 정책자금을 모두 7조3천억원 지원(융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운용 규모는 기존 안(案)의 5조8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올해(5조7천억원)와 비교해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책자금 종류별로 증액 규모(기존 안 대비)를 살펴보면, 농기업 등에 대해 1천만원 이상 빌려주는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1조3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늘고 주로 소규모 경영자금 융자에 활용되는 영농자금도 2조9천억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어업인들을 위한 영어자금도 1조6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확충된다.

/연합뉴스

전남도, 친환경 기업 등 410억 투자 협약

전남도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정복균 ㈜파인포레스트 대표, 심순식 ㈜가나안산업 대표, 김응수 ㈜신기개발 대표와 남평사랑병원을 건립할 예정인 이학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친환경 관련기업들로 총 4건의 투자협약이 체결됐으며 투자액은 410억원 규모로 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 포천에 본사를 둔 ㈜파인포레스트는 연 매출액 150억원 규모의 국내 목조 건축업체로, 나주에 120억원을 투자해 본사 이전과 함께 한옥 보급사업과 연계한 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

㈜가나안 산업도 나주에 총 80억원을 투자, 고급 주택의 건축물 창호와 복층 유리를 제조하며 ㈜신기개발은 무안에 70억원을 들여 황토를 자원으로 친환경 흙 포장재를 생산한다.

사랑병원은 나주 남평읍 일원 부지 4천㎡에 140억원을 투자해 요양기능 병원과 전문요양소 650병상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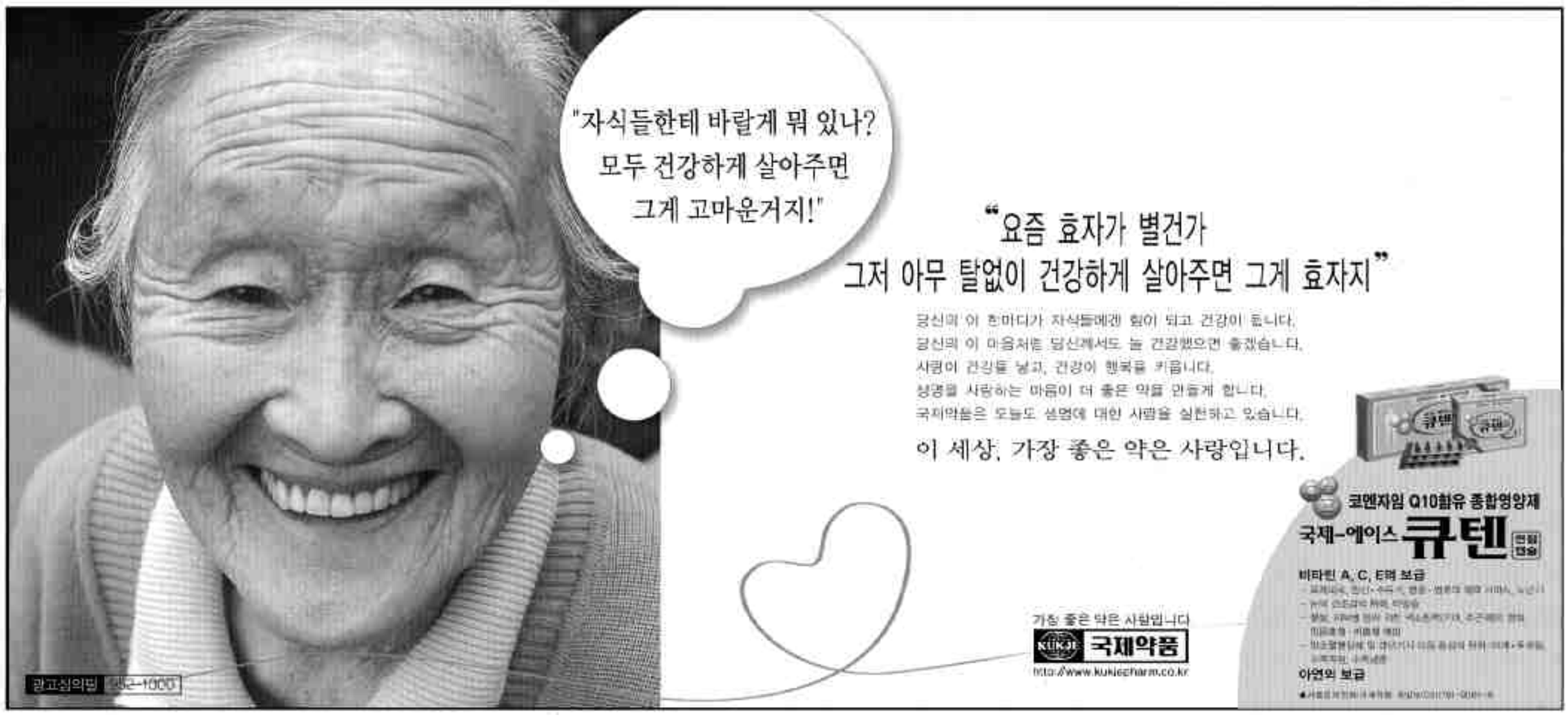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첨단 2단계 사업지구 상업용지 경쟁 입찰 공급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우석)는 광주 첨단과학산단 2단계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용지 30필지(2만9천269㎡), 주차장용지 3필지(3천720㎡) 등 총 33필지(3만2천889㎡)로, 일반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는 26일 입찰서 제출을 받아 27일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결과는 당일 토공 토지청약시스템(http://buy.1plus.or.kr)을 통해 공고한다.

◇ 대주그룹 인사

▲그룹경영지원실장(부사장) 이상식